

# 금호타이어, 흑자전환 청신호

7월 해외매각 1주년...‘국내 RE 시장’ 2년 연속 1위

흑자 전환 실현위해 효율적 공장운영 방안수립 시급



금호타이어가 오는 7월 해외매각 1주년을 맞는 가운데 흑자 전환을 위해 영업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공장운영 방안 마련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1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중국 타이어기업 더블스타 인수 이후 경영정상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전시적인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수용 ‘RE(교체용)타이어’ 시장에서 2017년에 이어 2018년까지 2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RE타이어는 자동차가 출고된 이후에 교체해 장착하는 타이어를 뜻한다.

내수시장에서 RE타이어와 OE(신차용) 타이어의 비율은 7대 3이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8년 12월 누계 기준, 내수시장에서 총 625만 본의 RE타이어를 판매했다.

이는 국내 타이어 3사 전체 판매량의 40.6%를 점유하는 수치다. 2017년에도 점유율 39.5%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중국 더블스타 해외자본 유치과정에서 제기된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킨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RE타이어 시장 점유율 2위의 한국타이어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프리미엄 RE타이어 시장 판매 호조와 신제품 출시에 힘입은 금호타이어는 2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등 실적 개선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경영정상화 아직은 멀길...'노사 합심' 효율적 공장운영 방안 마련 시급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4월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특별합의'를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법정관리 위기에서 벗어났다.

노사는 상생과 협력을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겠다고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 행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를 지켜보는 지역경제계와 지역민들의 우려가 큰 게 현실이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영업오너(주문량) 부족과 이에 따른 공장 가동률 저하, 글로벌 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생존과 미래존속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판매량 회복과 이운 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2017년부터 8분기 연속 영업적자 기록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적자탈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월에는 공장 가동률이 역대 최저치인 '62%' 수준까지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의 시장 상황과 영업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공장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4월부터 생산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생산 운영계획을 조정하고, 여유 인력에 대한 이동·전환배치 등의 조치를 실

시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로 인력 재배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경영정상화 목표 달성을 2018년 단체교섭안이 부결된 가운데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조합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ه반기 턴어리온드를 통해 회사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 치러질 노조 집행부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경영정상화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공장 이전 용역 추진...개발계획 확정시 광주시와 협의 후 이전부지 물색

금호타이어는 현재 광주공장 이전에 따른 공장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달 말 전문 용역사를 선정하고 곧바로 용역 추진에 나섰다.

이번 용역은 지난 1월 미래에셋대우와 광주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체결한 업무 제휴의 연장선에서 진행된다.

금호타이어는 용역사에 의해 한 광주공장 부지 토지이용 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청을 비롯한 관련 주체들과 협의를 통해 적정부지로 공장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빛그린산단'의 경우 전남구역 분양 면적은 여유가 있는 반면 광주시가 분양하는 광주구역 용지는 포화 상태에 직면해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구역의 경우 잔여용지가 있지만 광주에 소재한 공장을 전남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을 비롯해 지역사회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올해는 반드시 흑자전환을 달성해 금호타이어의 생존과 미래 재도약을 위한 턴어리온드의 해로 만들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고 협력해서 현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 생산품 우선 구매해야”

신민호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인증장애인인생산품에 대한 신뢰와 인식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전남에도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가 최근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원 제고와 함께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돋우고 장애인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교육감이 관할하는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의 각급 학교로 명시하고 이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민호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을 비롯해 전남에 있는 1,300여개의 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지출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부족 등으로 이로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소극적”이라며 “장애를 용기로 디고 일아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조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광주 어린이교통공원

### 친환경 전기열차 교체

광주시는 어린이교통공원 내에서 운행하는 노후 디젤마리열차를 ‘친환경 전기열차’로 교체한다고 15일 밝혔다.

친환경 전기열차의 디자인은 어린이들이 선택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두디다롱’으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2곳을 방문해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53%를 차지한 두디다롱 디자인을 최종 안으로 결정했다.

친환경 전기열차는 7월까지 제작한 뒤 시운전을 거쳐 8월 초 정식 운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어린이교통공원의 오래된 시설물을 2021년까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혁신 프로그램으로 전면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 동구,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

광주 동구가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동구는 관내 경로당 1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까지 수요조사를 마치고 면적·건물구조 등을 고려해 경로당별로 1~2대씩 총 188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동구는 공기입출을 거쳐 공기청정기를 일괄구매, 22일까지 모든 경로당에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되는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헤파필터가 장착된 제품으로 CA인증(실내공기청정기 단체기준),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등 품질·안전인증을 받았다.

## 서구, 세계수영대회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광주 서구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 광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페스티벌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특별점검에 나섰다. 2개반 10명으로 기동처치반을 구성한 서구는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로변, 이면도로, 상가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현수막, 벽화, 배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풍선광고물, 입간판과 다수연보석으로 설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 남구, 돌보인 재난대처 정부 재난평가서 두각

광주 남구는 최근 정부 주관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및 재난관리 평가에서 호우와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각각 우수기관에 연달아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 지자체에서 추진한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사전 대비실태 점검 항목과 인명 및 재산피해, 대응조치 등의 지표에 따라 진행됐다. 남구는 이번 평가에서 개인 연량과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재난관리 구성원의 지식 및 기술 활용, 구성원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단체장 리더십 등 전문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북구, 노사민정 상생협력으로 행복 일터 만들기

광주 북구가 인정적인 노사 관계와 활기찬 일터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북구는 “지역 노사민정 공동의 대회와 상생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19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15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4월 노동계, 경영계, 고용노동청 관계자, 구의원 등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증진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제택하고 노사 상생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또한 올해 추진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노동인권 보호 △우리 지역 노사 상생 우수사례집 제작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콘텐츠 발굴 △노사민정 협력 거버넌스 운영 등 4대 분야 16개 사업도 의결했다.

## 광산구, 송정역서 5·18주먹밥 나누기

14일 광주 광산구가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광주송정역에서 5·18구속부상자회 광산구지회, 광산구지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5월愛(애)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열고, 오가는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줬다. 5·18 기념사진 전시와 해설, 민중가요와 난타 공연 등 작은 콘서트가 겸여진 이날 행사에서 5·18구속부상자회 광산구지회 김강호 회장은 “국가 폭력에 맞선 5·18은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정의로운 힘”이라며 “행정의 기억을 잊는 주먹밥이 80년 5월 광주의 정신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 목포·장성·해남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주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 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임영택[1952. 2. 26.생, 2019. 2. 10. 사망, 최후주소 광주 서구 상무대로1243번길 2-6(양동)]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2019. 4. 12. 광주가정법원 2019느단614호로 상속신청승인 신고를 하여 2019. 5. 3.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재산상속현정승인에 따른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19느단614 상속현정승인

공고인: 임광현

광주 북구 삼정로 7, 103동 1506호(두암동, 올곡타운)

한정승인수리일: 2019. 5. 3.

공고기간: 2019. 5. 16부터 2019. 7. 16.까지(2개월 이상)

신고장소: 광주 동구 지산로 71-1(지산동) 법무사 조기희 사무소

전화: 062-236-1255, 1257)

2019. 5. 16.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062-603-1060 FAX: 062-603-1062  
H-P: 011-641-6152



##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 무대리